광주여자대학교
KWANGJU WOMEN'S UNIVERSITY

치위생학과 17학번

최세나 졸업생

소속: 광주보훈병원
직위: 보건직 5급

Q1.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느낀 경험은 무엇인가요?

부학회장과 학회장을 연이어 맡으며 학우들과 교수진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학술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구강보건의 날 등 주요 행사를 총괄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Q2. 광주보훈병원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전공 수업과 임상 실습을 통해 환자 응대와 진료 보조의 기본기를 다졌고,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노인구강보건과 전신질환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설명 방식을 연습하며 보훈병원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Q3. 현재 광주보훈병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광주보훈병원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며 국가유공자분들과 지역 주민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전신질환을 가진 어르신 환자가 많은 만큼 진료 전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스케일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4.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실무 능력뿐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키는 소통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치료를 두려워하던 어르신께 과정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드린 뒤 편안하게 진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며 작은 배려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Q5. 대학에서의 경험과 현재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으면 하나요?

재학 중 학생회 활동을 하며 학과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선후배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졸업 후 광주보훈병원에서 근무하는 모습 역시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6.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정성 어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 건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Q7. 후배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학회장이나 학생회처럼 사람들과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 번쯤 경험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실무 능력과 함께 환자의 눈높이에서 따뜻하게 소통하는 태도를 갖추고,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합니다.

COPYRIGHT(C) KWANGJU WOMEN'S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